

과학기술과 행복, 그리고 ...

글_엄정식 서강대 철학과 교수 jsumek@hanmail.net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직업이나 성별, 혹은 나이와 인종 같은 것에 전혀 구별이 없다. 그가 정치가이든 경영인이든, 혹은 성직자이든 노동자이든 상관없는 것이다. 과학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철학자들 사이에도 행복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각적 쾌락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이성적 동물로서 인간이 갖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상태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연히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실현된 상태로 보기도 한다. 심지어 행복이란 상상력의 소산인 공허한 개념이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철학자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견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행복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해 볼 수 있다.

첫째,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윤리적 개념이다. 그것은 심리 상태의 표현이므로 심리적 측면에서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요소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이상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행복이 과연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소망을 실현하였을 때 경험하는 일종의 만족감인 것이다.

셋째, 행복은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만 고유한 경험으로서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나 순간적인 환희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

서는 자기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와 직관적 통합의 능력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행복이 윤리적 개념이라는 말은 윤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일반적으로 윤리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를 함축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식물처럼 피동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서만 만족해 있어도 안 되고, 짐승처럼 욕구에 이끌려 함부로 날뛰어도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에 이르는 수단이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령 부귀나 명예, 혹은 권력 같은 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심지어는 건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건강 자체로서는 인생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계속 부딪치게 마련이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은 좀 더 높은 차원의 가치인 그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이다.

한편 행복은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고도 현실적인 경험의 내용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복은 쾌락이나 심리적 만족감 혹은 적어도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들을 지칭할 수 있다. 사실 행복이 쾌락 그 자체 혹은 쾌락의 일종이라는 견해는 오래 전부터 널리 주장되어 온 입장이다. 분명히 우

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해야겠지만 쾌락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혹은 이산가족이 뜻밖에 상봉하게 되었을 때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겠지만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행복이 단순한 쾌락이나 만족감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생 계획의 맥락 속에서, 혹은 총체적인 자아의 실현과정 속에서 오는 지속적인 경험의 일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인생계획이란 무엇이고 총체적인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총체적 자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생계획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이 항상 산 너머 저편에 걸려 있는 무지개처럼 아득하고 먼 그 무엇으로 느껴지는 지도 모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지개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매달려 있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무지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우선 우리는 무지개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손아귀에 쥐어질 수 있는 사물이 아니며, 멀리서 바라볼 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흔히 사람들은 현대를 과학 기술의 시대라고 말한다. 유럽의 중세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가 사람들에게 인생관이나 세계관 혹은 가치관을 제공했기 때문에 종교의 시대였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한다. 오늘날에는 과학과 기술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세에 성직자나 교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흠모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게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중세에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종교적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행복도 좌우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근대의 계몽주의자들은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불렀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이 시대가 또 하나의 암흑시대 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인과율을 새로운 신처럼 대하고 과학기술자들의 가르침에 맹종하며 “무지개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이란 “합리적인 인생계획을 가진 사람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의무나 당위를 이행하는 동안 총체적 자아에서 우러나온 소망을 성취시켰을 때 얻는 만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의 행복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윤리적 차원에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총체적 자아를 형성하는데 별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도 않다. 다만 우리의 욕구를 증진시키고 이것을 쉽게 만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더욱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다.

아마 지금은 동서고금의 현철들이 행복을 찾기 보다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가르치며, 먼저 욕망을 줄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가르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음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⑤①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문과대학 졸업 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